



같이앤가치게협, 동충등에 컵과일 100개 지원

남원시 동충등은 '같이앤가치게협동조합' (이사 김수현)에서 지난 18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컵과일 100개와 열지전자 남원지점에서 후원받은 키친타올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컵과일에는 수박, 바나나, 꿀 포도 등 알록달록한 과일 등이 담겨있으며, 더위에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과일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건강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협동조합은 바자회를 추진해 얻은 수익금 150만 원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기부한 바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 비리스타 20명 배출 등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수현 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면 언제라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문훈 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도움을 주신 협동조합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충등이 구도심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최고의 동충등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은혜종합장식과 재능기부 나눔 협약

남원시 수지면은 동문사거리 은혜종합장식(대표 박인환)이 수지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 면청사에서 재능기부 나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박인환 대표는 평소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도배 및 장판 교체지원등을 수년간 지원해 왔으며 "올해 9월 부터는 수지면을 거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혜대상자에게 도배 등의 재능기부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방미자 수지면장은 수지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인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등 순창군협, 보훈가족과 평화통일 콘서트

민주평화통일지원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윤영식)는 23일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안보단체,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위대한 헌신을 추모, 기억하고 지역의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과 통일외지 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서트에는 탈북 예술인으로 구성된 북한 백두한라 예술단(단장 김영옥)이 초청됐으며, 전정영상을 시작으로 장고춤 연주,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평화를 향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윤영식 협의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다중이용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피난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다중이용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폐쇄행위,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방화문 및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또는 훼손, 장애물 설치 △소화기·소방시설의 설치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 후 신고자에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덕규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우덕희 제9대 진안문화원장 당선

임시총회서 단일 후보로 등록 추대식 결정

진안문화원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 47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 9대 진안문화원장에 우덕희(66)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날 진안문화원의 집 마이홀에서 실시된 임시총회에서 우덕희 후보가 단일 후보로 등록하여 추대식으로 결정되었다.



한을 다시 맡게 되어 부담감 또한 느껴진다"며 "지금까지 느꼈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활기찬 진안문화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의 강화, 예술교육의 강화 문화적 교류 확대, 디지털 문화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참여 강화의 5대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원의 회원 및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진안문화의 중심체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자체 전영위원을 구성하여 협의된 부원장 2명과 이사 17명을 최종 선임하여 2023년 9월 24일부터 4년간 9대 문화원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석케미칼, 올해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5000만원 기탁

(주)정석케미칼(대표이사 김용현)은 23일 전북도내 이공계 대학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00만원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기탁했다.

(주)정석케미칼에서는 작년보다 현재까지 총 1억원의 장학금 후원을 통해 전북 이공계 대학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김학권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지정장학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 도내 대학교 이공계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용현 대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학업을 수행하는 도내 대학 이공계학과 학생들의 면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의 우수기업인 (주)정석케미칼의 장학금 기탁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북 미래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부안농협 임직원 일동,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무주군은 23일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 외 임직원 일동이 고향사랑 기부금 550만 원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김원철 조합장은 "황인홍 군수님의 인연이 무주사랑 기부로 이어지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반딧불이와 태권도 관광과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주민의 색깔과 장점을 살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무주군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 군민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기부금에 담았다"라고 전했다.

임직원 수 114명, 조합원 수 6,313명의 부안농협은 본점을 비롯한 3개의 지점과 하나라마트, 미국종합처리장 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등을 운영하며 신용(예금, 카드, 보험, 대출) 및 경제(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세 등), 교육지원(다중재해 및 장학, 지역사회봉사, 다문화가정 지원 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부안농협 특산물로는 천년의 순씨와 풍작소리, 해풍 자연햇살 등의 쌀과 동진감자, 주산 블루베리 등이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조합장 시절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무주사랑 기부에 동참해주신 부안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전한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는 사)전북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에서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남원시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완주군에서 LED조명기기, CCTV, 하수처리장치 등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장애인 합동 결혼식, 국토순례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태복 협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에 함께 할 계획"이라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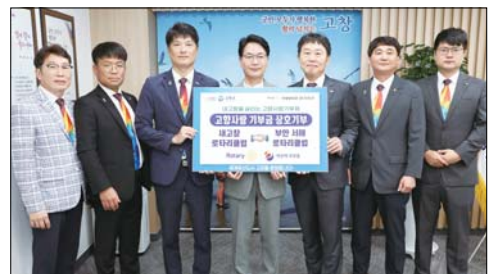
전주제일로타리클럽, 조도개선 봉사 나서

3670지구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김정민)은 지난 16일 사)한국농어인협회 전북도협회를 찾아 조도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복지해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심을 받지 못하는 농어인협회를 방문해 교육장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교육장과 사무공간의 오래된 조명 20여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 전등교체작업은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한국농어인협회 회장은 조도개선 봉사를 해준 클럽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김정민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새고창 부안서해로타리클럽, 고향사랑 상호기부

고창군 새고창로타리클럽(회장 임진용)과 부안군 부안서해로타리클럽(회장 신용복)이 22일 지역 간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7월 비슷한 시기 취임한 양 지역 로타리 회장들은 취임 초기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봉사를 펼쳐 오고 있다. 지역 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의기투합하여 고향 부안 간 상호기부를 추진하게 되었다.

임진용 새고창로타리클럽 회장은 "고창 발전의 열망을 담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복 부안서해로타리클럽 회장은 "상호기부를 바탕으로 부안군과 고창군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서해로타리가 부안군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부안군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부안서해로타리 회원들의 고창군 방문을 환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기부해주신 두 지역 로타리클럽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고창군은 지역발전과 인구 감소 소멸위기 극복을 공강하는 각 지역농협, 학교, 기관 등 지역사회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고창군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임직원 홍보를 통해 소득공제, 답례품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을 알리고 있다. 특히, 지속형 중학교로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오는 영선중학교는 직원 홍보 및 학부모 SNS, 입학설명회 시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에 동참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선관위, 장애인유권자 맞춤형 선거교육 실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익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선관위가 새내기·다문화·장애인 등의 민주주의 함양을 위하여 실시해온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유권자 연수'로서 지난 5월 부인과 7월 전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진행되었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선거참여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체험과 교육이 필요한 만큼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 △투표소와 비슷한 환경에서 직접 모의투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투표소에 비치되고 있는 '특수형 기표용구', '접사투표보조용구', '발달장애인 투표안내문' 등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참정권은 투표참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임실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 3차 정례회의 개최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박남용(김문배)이 지난 22일 신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올해 협의체 특화사업인 추수 명절 제수용품 꾸러미 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용 및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추수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취약계층 40명에게 한우 등 다양한 물품으로 제수용품 꾸러미를 알차고 실속있게 준비해 지원하기로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사랑의 반찬 나눔 3차 활동과 11월에 추진할 김장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남용 신덕면장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민관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